

그 동안 하마들의 대화모임에서 나뉘던 주제들을 나열해봤습니다.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물론 뒤늦게 떠오르는 이야기를 기록해보면 좋을 듯해요.

참여했던 언니들은 물론, 참여하지 못한 언니들도 지금 떠오르는 생각, 언니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남겨주세요. 어린 시절 교환 일기장 같은 감성으로. ^^

1. 양육에 대하여_23.8.11-

❖ 어린 시절 내가 아직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낳은 아이와 아직 내 안에 남아 있는 아이를 동시에 키우고 있는 것 같다.

❖

2. 휴가(여가)에 대하여_23.08.18-

❖ 결혼한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는 온전한 휴가라고 할 수 없었다. 온전히 나 혼자 보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휴가였다. 처음으로 훌몸(?)으로 대학친구들과 1박 2일 여행했을 때가 처음 휴가였던 것 같다. 10년 넘게 왜 혼자 여행 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3. 교육(학습)에 대하여_23.08.25-

❖

4. 안전에 대하여_23.09.01-

❖

5. 시민사회운동에 대하여_23.09.08-

❖

6. 불평등에 대하여_23.09.15-

❖ 우리가 언제 평등한 적이 있었나? 이제 겨우 무엇이 평등한 것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7.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_23.09.22-

❖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편의점처럼 동네 곳곳에 생긴다면 좋겠다.
❖ 생협, 로컬 제품 구입, 과대포장 제품 사용 최소화, 일회용이지만 여러번 사용하기
❖ 텃밭가꾸기, 나무심기 등 숲가꾸기 봉사, 환경단체 활동 참여 등
❖ 작은 실천들을 모아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무력감으로 인해 생태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8. 나의 명절 연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_23.10.06-

- ❖ 제사가 1년에도 8번이 있는 소위 큰집에서 자라온 딸이었기에, 명절 전날과 명절날은 제사음식을 차리는 것을 시작으로 늘 시작되었다. 그 복잡함이 어렸을 적에는 그저 좋았다. 엄마를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엄마는 길고 긴 명절 음식 준비에 늘 지쳐있었다. 그 와중에도 아빠와 작은아버지등, 친척들의 술상을 보아야 했고 명절날 지상파에서 해주는 영화는 늘 아빠와 오빠의 몫이었다. 엄마는 40여년에 지난 지금이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명절때 제사음식과 작별을 하였다. 나 또한 결혼 후 명절 음식과는 아쉬운 작별을 했다. (사실 엄마가 만든 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명절음식에 해방된 엄마는 명절때마다 펜션을 2박3일 예약하고 1박2일은 오빠네 식구들과 1박2일은 우리식구들과 보내고 돌아온다. 엄마는 이제야 명절때 명절특선영화를 과일을 먹으며 보신다.
- ❖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남이었고 3대가 같이 살았다. 당연히 엄마는 맘머느리, 나는 맏딸로 명절 연휴는 집안일을 해야 했다. 제사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날. 엄마는 막네 숙부가 결혼해 처음 작은 엄마가 명절을 함께 보낸 해에 처음으로 명절 연휴 끝날 즈음 친정에 갈 수 있었다. 설에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만두 소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연휴가 시작되면 비로소 며느리와 딸들만 모여 음식을 준비한다. 남자가 준비하는 차례음식은 오직 밤 짝는 것. 남동생에게 음식 준비는 놀이로 참여할 선택이 주어진다. 3일 내내 기름냄새가 온 몸에 밴다. 그래서 나는 막네 아들과 결혼했다. 절대 맘머느리는 되지 않겠다 생각했다. 다행히 남편의 본가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는 막네네였다. 가족묘에 가서 간단하게 절을 드리고 오는게 다다. 그러나 명절에 음식을 안하는 건 아니었다. 다행히 음식 준비와 뒤통닥거리는 모두 며느리들의 몫이다. 어머니도 며느리였지. 남편은 아내인 나보다 어머니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불만을 얘기하면 안되는 분위기였다. 우리집에 비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명절이었지만, 그래도 먹고 치우는 일이 모두 며느리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계속 쌓였다. 결국 나는 명절에 두 집 다 안가는 날이 많아졌다. 명절의 연휴가 온전이 연휴가 되었다.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쉬고 싶은 만큼 쉰다. 그 동안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고 여유있게 나다닌다. 기회가 된다면 나도 명절 연휴에 장거리 여행을 가보고 싶다. 혈연관계이든 아니든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9. 선거제도에 대하여_23.10.13-

❖

10. 집(사는 곳)에 대하여_23.10.20-

- ❖ 오늘 언니들과 이야기 나누며 반지하에 살던, 주상복합에 살던, 고급 실버타운에

살던 결국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얼마나 정을 나누며 사는가가 관건이구나 싶었다.

- ❖ 최소한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이 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에는 기후위기와 같은 상황같이 느껴진다.
- ❖ 사는 곳이 취약해지면 모든 상황이 취약해지는 상황에 놓인다. 가장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사는 공간의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다.

11.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_23.10.27-

- ❖ 11월 24일 대면모임 한다는 공지글에 달린 하마들이 교환일기를 열었다. 며칠전부터 나는 돈키호테인가...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쁘게 차려입고 지나가는 또래들을 보면서, 난 맨날 청바지 바람인데, 아이들과 지내는 일은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언젠가 지금 같은 상황이 닥쳐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변호사님과 통화하면서 선수금이 천만원이란다. 과태료 삼백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 도저히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수금 천만원.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 ❖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요리하는 세상인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그 시점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 ❖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 아동대교사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 ❖ 하마들의 대화 처음으로 대면모임에 갔다. 언니들 만날 때 쉬는 것 같다. 숨 쉬는 거 같다. 언니들이 달마다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12. 자유주제_240412

13. 자유주제_240510

14. 자유주제_240614

15. 자유주제_240712

16. 날씨에 대하여_240809

17. 가족에 대하여_240920

